

石 밑에는 石窟이 있다 永嘉誌 佛守條에는

玉山寺 左府北三十二里 玉山中 共北五里有石穴이라 있어 「玉山中」이나 「有石穴」이나 모두 現地狀況과 附合됨으로 玉山寺로 推定할만하다. 이地點은 瓮泉部落南方에 位置하는바 「瓮泉驛」은 「在府北三十五里」라 하였으며 永嘉誌에 실린 塚塔에 關한 記錄도

「瓮泉驛南方玉山之北」

이라 있으니 이를 宗合하여 玉山寺址로 보아도 無妨하리라고 생각된다.

### 太一殿銘 李朝白磁象嵌

崔 淳 雨

李朝白磁象嵌에 關한 새 知見이라고 할수있는 在銘白磁象嵌托蓋하나가 李洪根氏所藏品中에서 새로히 알려지게 되었다. 이 托蓋은 이 部類의 李朝그릇으로서 처음 알려진 在銘器로서 簡古한 손잡이가 양쪽에 붙어있는 唐草文이 象嵌된 蓋과 안바닥에 「太一殿」三字를 象嵌한 잔대로 되어 있으며 이 잔대의 곱바닥에는 「十」字로 보이는 陰刻銘이 남아 있다.

釉調와 釉色은 뛰어나지 못했으나 溫雅한 帶錄의 白磁釉에 세밀한 氷裂이 있는 高麗白磁流의 釉樂이 비교적 두텁게 施워져 있다 「太一殿」이라는 銘文은 아마도 文字를 解得 못하는 사람이 색인 모양으로 字劃도가 누지 못한 稚氣있는 表現이 재미있어 보인다 「太一」이라 함은 이미 高麗時代에는 있었던 星座에 祭祀, 祈禱하는 信仰으로서 高麗史에는 別서 文宗十年九月 己丑에 「祀太一於壽春宮 以禳火災」란 句節이 처음 보이고 그 밖에도 高麗史의 여러 저기에 「醮太一於內殿」이라던가 「新醮太一於文德殿以祈風雨調順」 또는 「醮太一祈雪」等 國家的인 祭祀 祈禱의 句節이 보이고 있다. 獨立된 祠宇로서 太一殿이란 이름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高麗史에는 없는 것 같고 李朝實錄 太祖六年(一三九

八) 九月戊申條에

「罷太一殿合於昭格殿」이라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李朝國初로부터 太祖六年

까지 存續했으며 다

시 없어졌다가 어느

時機에 義城에 太一

殿이 設置되었던 것

으로 보여진다. 義

城太一殿에 關해서

는 東國輿地勝覽 卷

二十五 義城古蹟條

에 「在水穴傍 每歲

上元 降香以祭 成化

十四年戊戌(一四七

八) 移忠淸道 泰安

郡」이라는 기록이

있고 小書 卷十九 泰

安縣祠基條에는 「在白華山古城內成宗十年己亥自慶尙道義城縣移安于此」

란 것이 있는 것을 보면 一四七八年 以後는 義城에서 忠淸道泰安에 移置

해서 存續했음을 알수 있다.

이 托蓋은 慶尙道出土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그 樣式技法으로 보아 太祖六年以前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생각됨으로

결국 이것은 太一殿이 義城에 있던 一四七八年 以前, 말하자면 대체로

十五世紀 前半期頃에 太一殿에 納品하기 爲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짐

작할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은 義城에서 머지않은 地方官窯의 産이었으리

라고도 할수 있을 듯 하다.



李朝初期의 白磁에 鐵砂 또는 赭土로 蓮唐草文等을 비롯한 무늬를 象

嵌한 예는 그리 많다고 할 수 없으나 奧平武彦 淺川伯教에 依하여 그 窯址(註一)가 알려진 바 있고 筆者도 一九六〇年 五月 廣州郡 上樊川里의 窯址에서 이러한 白磁象嵌破片을 採集한 바 있었다. 대개 이들 李朝白磁象嵌 그릇들은 器形이 明風을 닮은 것이 많고 또 釉藥에도 釉裂이 세밀하고 부드러운 感覺의 高麗白磁流와 釉裂이 없는 李朝初期白磁系의 두 系流가 있는 것이 注意된다고 할 수 있다.

蓋口徑 一〇・二cm 高五・四cm 잔대徑 一六cm 高四・四cm

註

① 奧平武彦 陶器講座(東京雁山閣)收錄 「李朝」五〇面に 慶州上樊川里에 窯地있다고 報告하고 있다.

② 淺川伯教 陶器全集(東京平凡社)一七卷 三면에 廣州樊川里것을 例示하고 忠淸 慶尙 兩道の 큰 窯地에서도 破片을 볼 수 있다고 했다.

## 延嘉七年銘 金銅如來像 銘文

金 元 龍

慶南宜寧에서 一九六三年 七月에 發見되어 國寶 一一九號로 指定된 延嘉七年銘佛은 年代가 確實한 韓國佛像으로서 現在까지 알려진 것中 가장 오랜 것이라고 생각된다.

銘文은 佛像光背에 四行四十七字의 略體를 섞은 楷書體로 陰刻되어 있으며 그全文은 다음과 같다.

延嘉七年歲在己未高麗國樂良  
東寺主敬弟子僧演師徒冊人共  
造賢劫千佛流布第二九回現歲  
佛比丘拏穎所供養

이 銘文中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東寺主敬、弟子僧演、第二九回現歲佛

比丘拏穎 등의 文句인데 東寺主敬은 樂浪東寺住持인 敬、弟子僧演은 弟子僧인 演、第二九回現歲佛은 二九番째로 今年에 만들어진 佛의 뜻일 것이고 比丘拏穎의 擡字는 擡의 略體일 것이고 穎은 벼이삭이니까 擡穗의 뜻이 되며 벼이삭을 두들겨 落穀、脫穀시키는 農夫의 뜻이 될 것이다. 또 賢劫千佛은 現在의 大劫에 나타나는 千佛의 뜻으로 賢劫은 梵語로 Bhadra-kalpa이며 過去인 莊嚴劫、未來인 星宿劫에 對해 現在인 劫을 말한다. 劫이란 佛道에서 말하는 헤아릴 수 없이 오랜 時期다.

結局 이 銘文을 번역하면 大略 다음처럼 될 것이다.

「延嘉七年 己未歲에 高句麗國平壤東寺의 住持 敬과 그 弟子僧인 演等 師弟四十人이 힘을 합해 賢劫의 千佛을 만들어 世上에 流布키로 하였는바 今年에 만든 이 第二九번째의 佛像은 比丘拏穎이 出費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延嘉는 高句麗의 逸年號가 分명한데 그 七年己未는 西紀五三九年(安原王九年)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보다 한바퀴 앞선 四七九年은 樣式的으로 너무 빠르고 한바퀴 늦은 五九九年은 이러한 佛像으로서는 너무 늦은 感이 있다.

그리고 여기 千佛이라고 하고 있지만 반드시 千佛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몇해에 걸쳐 多數의 小銅佛을 만들어낸 모양이다.

## 高麗梵鐘의 新例(五)(註)

黃 壽 永

近年에 出土되어 民間에 入手되어있던 小鐘 三例를 今月初旬 調査할 수 있었기에 간략하게 紹介하여 둔다. 모두 埋藏物로서 寺址에서의 發見品으로 짐작될 뿐이다.

(17) 戊辰銘 青銅小鐘

通型의 小鐘으로 甬筒(頂上에 四珠)과 龍鈕를 鐘頂에 갖고 있다.